



# 김덕현 근육통에도 더 멀리 뛰었다

〈광주시청〉

## 멀리뛰기 8m11 금빛 착지...한국 원정 최다 메달

한국 남자 도약 종목의 간판 김덕현(25·광주시청)이 금빛 점프에 성공했다. 김덕현은 24일 중국 광저우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린 멀리뛰기 결선에서 8m11을 뛰어 중국의 수시웅광(8m05)을 6cm 차로 따돌리고 한국에 70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전날 진도 출신의 정순옥(27·안동시청)이 여자 멀리뛰기에서 금빛 도약 이후 육상 2번째 금메달이다.

이로써 한국은 이번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한국은 이날 김덕현의 멀리뛰기 금메달에 앞서 인라인 롤러, 양궁, 근대5종, 불링 등에서 금메달 6개를 추가하며

추가하며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70개, 은메달 59개, 동메달 80개를 획득했다. 1위는 중국(금 171·은 91·동 85), 3위는 일본(금 36·은 66·동 72)이다. 한국의 이번 대회 금메달 70개 획득은 지난 1998년 방콕대회에서 기록한 역대 원정 아시안게임 최다 금메달인 65개를 훌쩍 뛰어넘은 기록이다. 한국이 아시안게임에서 최다 금메달을 딴 것은 2002년 부산 대회 때 금메달 96개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세 단뛰기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던 김덕현은 이날 올 시즌 자신의 최고기록(8m10)보다 1cm를 더 뛰었다. 자신이 지난해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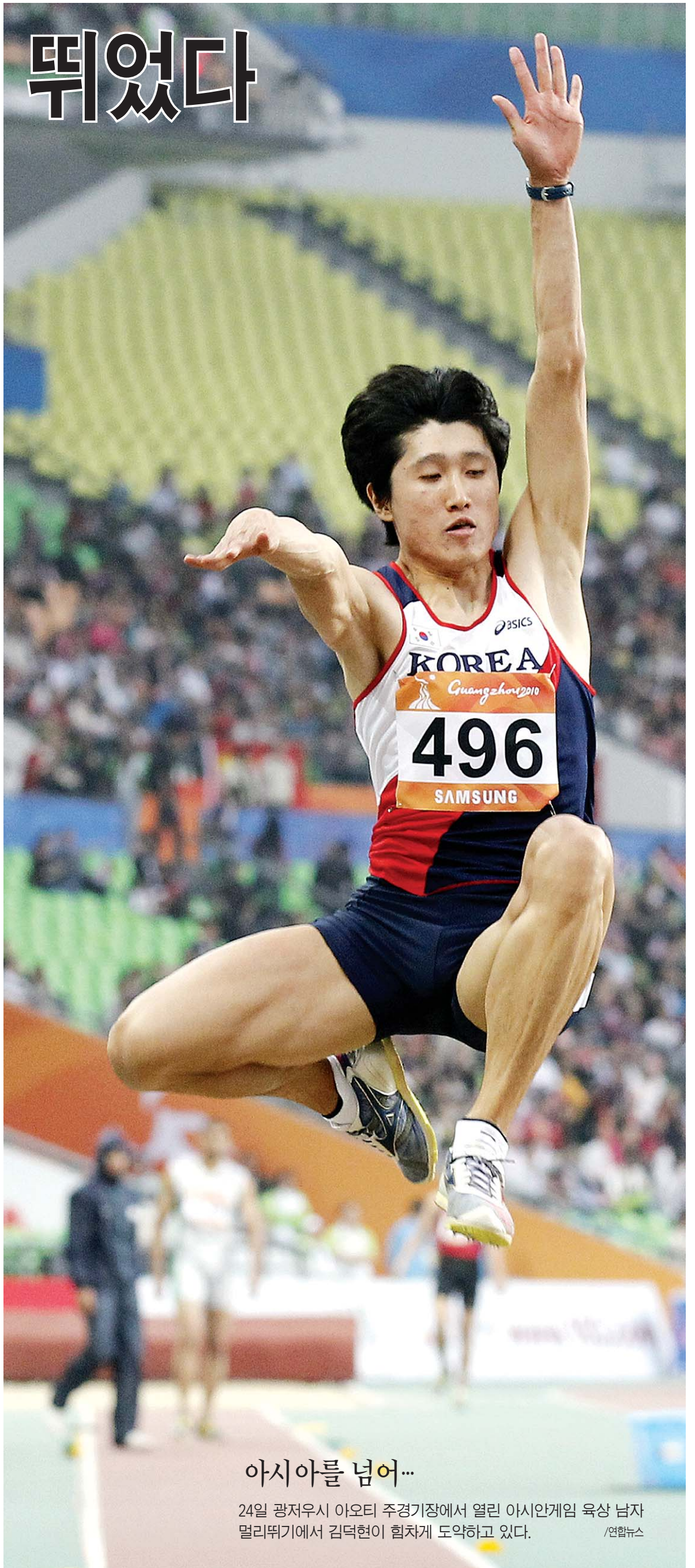
에서 세운 한국기록(8m20)에는 불과 9cm 부족했다. 1차 시기에 실패한 김덕현은 2차 시기에 7m95를 기록했다. 김덕현은 3, 4차 시기를 모두 실패했고, 2차 시기에 8m05를 뚫은 수시웅광에게 뒤처져 2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김덕현은 5차 시기에 8m11을 기록해 1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수시웅광이 5, 6차 시기를 모두 실패하면서 김덕현은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근육통을 이겨내고 딴 값진 메달이었다.

김덕현은 2008년 전국체전에서 8m13으로 21년 만에 한국신기록을 갈아치우며, 2009년 하계유니버시아드에서 8m20을 날며 한국 도약 종목의

국가별 메달 순위 (24일 20시 현재, 한국시간)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171	91	85
2	한국	70	59	80
3	일본	36	66	72
4	이란	14	10	16
5	대만	12	12	33
12	북한	5	10	17

1인자로 자리를 굳혔다. 발교 삼광중학교 시절 트랙 선수로 활동했던 김덕현은 광주체고로 진학해 1학년 때 멀리뛰기로 전향했고, 2학년 때는 세단 뛰기를 시작했다. 이후 조선대에 진학해 멀리뛰기와 세단 뛰기에서 한국신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는 저력을 과시했다. 김덕현은 26일 세단뛰기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여울기자 wool@



아시아를 넘어...

24일 광저우시 아오티 주경기장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육상 남자 멀리뛰기에서 김덕현이 힘차게 도약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막내의 금빛 화살... '신궁 코리아'

## 양궁 남녀 단체·개인 싸움이

한국 양궁의 '차세대 대들보'인 고교공사 김우진(18·충북체고)이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우진은 24일 중국 광둥성 광저우의 아오티 아치리 레인지에서 열린 대회 남자 개인전 결선에서 인도의 타룬디프 라이를 7-3(28-28 28-27 28-29 28-27 29-27)으로 꺾었다. 한국은 김우진의 우승으로 남녀 단체전과 여자 개인전에 걸린 금메달 3개를 포함해 이번 대회 전 종목을 석권하며 세계 최강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김우진은 올해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국가대표 막내로서 첫 메이저 대회인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2관왕에 올랐다. 지난 20일 벌어진 예선에서 개인 싱글 세계신기록까지 수립해 기록과 개인, 단체전 타이틀 등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한국 양궁의 새로운 간판으로 떠올랐다. 이날 결선에서 맞선 라이는 태극공사를 가운데 맞형인 오진혁(29·농수산홍소원)을 8강에서 따돌리고 올라온 다크호스. 김우진은 1세트에 9점-9점-10점을

쏘아 9점-10점-9점을 쏜 라이와 승점 1점씩 나눠졌다. 승부는 사실상 4세트에서 갈렸다. 김우진은 첫발을 10점과 9점의 경계에 쏘았고 나머지는 모두 9점을 쏘았다. 하지만 라이는 세 발을 모두 9점에 쏘고 말았다. 전관왕에 새겨진 점수는 27-27. 그러나 김우진이 쏜 첫발에 대해 정밀 검사 결과 9점이 아닌 10점으로 판정돼 4세트도 28-27로 이겼다. 승점 5-3으로 앞선 김우진은 마지막 세트 첫발을 10점에 꽂아낸더니 9점, 그리고 10점을 쏴 승부를 갈랐다. /연합뉴스



# 불링 최복음 3관왕 영예

## 마스터즈 금메달

여천실고 출신의 한국 남자 아마추어 불링의 간판 최복음(23·광양시청)이 마스터즈 금메달까지 더해 아시안게임 3관왕에 올랐다. 최복음은 불링 마지막 날인 24일 광저우 텐허 불링관에서 열린 남자 마스터즈 최종 챔피언 결선전에서 2게임 합계 462점을 기록, 2-3위 결정전 승자인 쿠웨이트의 무함마드 알지바(327점)를 135점차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4년 전 도하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최복음은 남자 3인조와 5인조 우승에 이어 3관왕의 영광을 안았다. 최복음은 또한 이날 오전 마스터즈

에선 9번째 게임에서는 12개의 스트라이크를 쳐내며 300점 만점을 올려 아시안게임에서 남자 선수로 처음으로 '퍼펙트'를 기록하는 경이사를 누렸다. 두 게임 점수 합계로 챔피언을 가리는 마스터즈에서 최복음은 첫 번째 게임을 217-154로 이긴 뒤 두 번째 게임에서도 245-173로 상대를 가볍게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다. 최복음의 노련미가 빛난 경기였다. 최복음은 예선에서 16게임 합계 3823점(16게임 합계 3703점+승점 120점, 예비리치 238.9)으로 챔피언 결정전에 먼저 올랐다. 예선 상위 3명이 스텝래더(하위 순위끼리 대결해 승자가 상위 진출자와 경기) 방식으로 겨루는 결선전에서 최복음은 첫 프레임부터 스트라이크를 때려 기세를 올렸다. /연합뉴스



최복음이 24일 중국 광저우 텐허불링홀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불링 남자 마스터스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